6강 루쉰의 비판으로서의 글쓰기

(1교시)

■ 비판으로서의 글쓰기 방식

※ 학습목표
루쉰이 글쓰기 규범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알아본다

▲ 패거리의 익명성
패거리는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고유한 가치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을 익명성 안에서 균질화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군중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은 패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무엇을 자기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속으로 은폐되어 들어가 버린다. 반면 집합적 실체는 내부에서 자율적인 관계들에 의해 구성원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규범 비틀기
루쉰은 자신의 글쓰기를 *'수레를 끌면서 콩국을 파는 사람'*이나 쓰는 말이라고 비하하던 고문론자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루쉰과 함께 '백화문 운동(언문일치 운동)'을 했던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문으로 돌아오려 한다. 이들이 바로 유학을 다녀오고 근대문물을 흡수했던 지식인들이었던 것이었다. 루쉰은 백화문을 통해서 경전의 글쓰기 형식을 비판하고 있다. 루쉰의 소설 「아Q정전」에의 '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쓰기'의 규범을 비트는 것이다. 그는 '전'(傳)이라는 글쓰기 형식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규칙을 조롱하고 비튼다. 그는 일상언어(백화문)를 통해 경전의 중요한 글쓰기 형식(역사서술)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아Q정전」은 이러한 비판의 내용을 루쉰 특유의 조롱과 풍자의 유머 섞인 문체로 표현한 것이다.

▲ 기록과 기억
루쉰은 '기록에 남겨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공유된 의식을 뒤집으려 한다. 승자의 기록이 바로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Q정전」에서 루쉰은 이런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록은 기억의 한 방식이다. 개인에게도 기록할 만한 것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에 관한 것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아큐와 같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기록이나 기억의 방식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망각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6강 루쉰의 비판으로서의 글쓰기

(2교시)

■ 반풍적인「아Q정전」과 아큐

※ 학습목표
「아Q정전」에 나타난 아큐의 자의식을 이해한다

▲ 강력한 유머, 반풍
"이전에 나는 묘사를 '지나치게'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령 사실대로 묘사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장래의 선량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늘 어떤 일을 공상하면 그것이 너무 엉뚱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여겼다. 그러나 만일 그와 비슷한 실재 사실과 마주치면 종종 그것이 오히려 더 엉뚱하게 보였다.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내 천박하고 좁은 식견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Q정전」의 유래)
루쉰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아Q정전」은 본래, 신문의 '개심화'(開心話)란에 일주일에 한 번 연재하려던 것을, 내용이 진지해서 '신문예란'에 연재되었다. *"필명은 하리파인(下里巴人)에서 취해 '파인'이라 했으니 전혀 고아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개심화는 일종의 유머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유머는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만드는 유머가 아니라 반풍(아이러니)을 통해서 원래 하고 싶은 얘기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 루쉰의 자기분열
루쉰의 소설 속 인물들은 루쉰이 새롭게 창조해낸 인물이라기보다는 루쉰의 분열된 자아 중 변형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루쉰은 굉장히 많은 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면서, 실제로 필명을 통해 완벽한 그 사람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루쉰은 매번 다른 이름을 쓸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철저히 다른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 아큐의 자의식, 정신승리법
아큐의 자존심은 실재하는 주체와 가상주체 사이의 분열 속에서 만들어진다. 즉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아큐는 변변찮은 신분의 다른 패거리들로부터도 조롱받을 만큼 어리석은 캐릭터이지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아큐(짜오 가의 사람으로 '수재'보다 항렬이 높으며, 옛날에는 잘 살았고, 견식도 높고, '정말 일꾼'으로 본래 '완벽한 인간'이라는)는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내부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다. 분열되어 있는 두 개의 인격을 아큐는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아큐에게는 자기유지라든가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주체로서의 자의식이 없다. 때문에 그에게는 노예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로서의 일관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의 아큐는 현실에서의 굴욕을 '형식상의 패배'로만 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식하며, 정신적으로는 승리한 것이라고 자위한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가와는 별개로 노예로부터 주인으로 호명됨으로써만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이외의 외부로부터는 주인으로 호명 받지 못하는 주인(가상의 아큐)은 현실에서 노예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6강 루쉰의 비판으로서의 글쓰기

(3교시)

■『아큐정전』에 나타난 아큐의 자각

※ 학습목표
아큐가 자신이 노예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의 이행
아큐는 가상세계에서는 정신승리법을 구사하지만 현실에서는 노예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 이외의 외부로부터는 주인으로 호명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아큐가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신체적 고통의 체험을 통해 가상의 세계와 결별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큐가 곧바로 현실의 노예로 굴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구걸을 통해 배고픔을 해소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가 구하려는 것은 그 자신도 몰랐다.

▲ 혁명 속의 아큐
헌데 뜻밖에도 백 리 사방에 그 이름을 떨치는 거인 나으리까지도 그토록 두려워한다니 그로서는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미장의 어중이떠중이가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큐는 더욱더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혁명이란 것도 괜찮구나.'하고 아큐는 생각했다.

아큐는 현실에서의 패배와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혁명을 선택한다. '탐나는 것은 모두가 내 것, 맘에 드는 계집도 모두가 내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질적이고 사적인 욕망, 지금 내게는 결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욕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 혁명을 통해 노예가 된 아큐
혁명 이전에는 정신승리법을 통해 스스로 주인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결핍과 욕망을 몰랐던 아큐는 혁명을 통해 결핍과 욕망을 배웠다. '혁명'의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한 아큐는 조바심을 내고 비굴해진다. 아큐는 이전에 자신이 업신여겼던 가짜양놈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끝내 거절당한다.

▲ 아큐의 자각
짜오 씨네 집에 든 도둑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관청으로 끌려간 아큐는 비로소 자신의 주인의식과 정신승리법이, 더 나아가 혁명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노예근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조리돌림을 당할 때, 구경꾼들의 시선을 보며 비로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20년만 지나면 또 한 사람...." 아큐는 정신이 없는 중에도 이제까지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는 말이 '스승없이 스스로 통달'한 듯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두고 섬광처럼 닥쳐온 이러한 자각 속에서 아큐는 비로소 노예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민국 원년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뒤쫓을 수도 없지만 이후로 만일 다시 개혁이 일어난다면 여전히 아큐와 같은 혁명당이 출현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단지 현재 이전의 어느 한 시기를 써낸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결코 현대의 전신(前身)이 아니라 이후의 일, 아니 2, 30년 뒤의 일이 아닐까 한다. (『아큐정전』의 유래)

사람들은 아큐를 특정한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큐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아큐가 단지 중국의 시대적 인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쉰의 말처럼 아큐와 같은 인물은 2, 30년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아큐는 노예로 안착하거나 노예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안에 등장하는 자화상의 모습이 아닐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